

이통사 수장, MWC 총출동... 5G 글로벌 외교 나선다



황창규 KT 회장
신사업 아이템 구상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GSMA 참여... 연합 구성



하현회 LGU+ 부회장
전략 파트너십 모색



SK텔레콤 'MWC 2019' 전시관(왼쪽)과 KT 전시부스 조감도.



/SK텔레콤·KT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9'에 총출동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력을 알리고, 5G 새 먹거리 찾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MWC 2019에 참석하며 5G 행보를 본격화한다. 특히 글로벌 우군을 확보해 5G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MWC 2019 개막 전날인 24일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을 대표해 세계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보드 미팅에 참석한다. 세계 220여개국 750여 통신사업자로 구성된 글로벌 협회체인 GSMA는 이사회 보드미팅을 통해 의제를 정하고, 통신사간 연합 그룹을 만든다.

박 사장은 보드미팅에서 SK텔레콤의 '로밍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통신사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창규 KT 회장은 MWC 2019에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그간 기조연설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5G 시대 선언,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 계획 등

을 밝힌 바 있다.

또 황 회장은 MWC 2019 현장에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관을 방문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트렌드를 확인하고 5G 신사업 아이템 구상을 할 계획이다. 주요 글로벌 기업 미팅 활동을 통해 KT의 5G 성과를 공유하고 5G 상용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도 추진한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행사 기간 동안 임직원 40여명을 이끌고 미국 버라이즌 및 티모바일, 영국 보다폰 등 글로벌 주요 사업자와 만나 ▲5G 전략 및 사업협력방안 ▲5G B2B서비스 발굴 사례 ▲5G 차별화 서비스 준비현황 등을 집중 논의한다. LG전자, 삼성전자, 노키아 등도 방문해 5G 스마트폰과 장비의 출시 로드맵을 공유하고 5G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최근 CJ헬로비전 인수를 발표한 LG유플러스는 방송과 5G를 연계한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미디어 서비스 사업자와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도 모색한다.

하 부회장은 "최근 시장흐름을 보면 통신·방송 서비스 융합에 따라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넘어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

다"며 "이번 MWC2019를 통해 다양한 시장 선도 사업자와 5G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는 전시부스에서 5G 주력 기술도 선보인다. 유일하게 10년 연속 MWC에 단독 전시관을 구축한 SK텔레콤은 MWC '피라 그란 비아' 제 3홀 중심부에 604㎡(약 183평)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마련한다. SK텔레콤은 현실과 가상공간을 넘나

드는 '5G 하이퍼 스페이스 플랫폼'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현실을 복제한 가상 공간을 만든 후 가상 공간에서 한 활동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 반영한다.

KT 전시관은 5G 스카이십, 5G 리모트 콕핏, 5G 팩토리, 5G 플레이그라운드, 5G 360도 비디오, 5G AI 호텔 로봇 등 총 6개의 존으로 구성된다. 특히 5G 스카이십 존에서는 한국에서 비행중인 5G 스카

이십에 장착된 카메라를 5G 기술을 통해 스페인에서 조정하는 시연을 선보인다. 5G 리모트 콕핏 존에서는 5G 네트워크를 활용 실시간 원격 자율주행과 관제 체험을 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함께 'LG와 함께 시작하는 5G'를 주제로 한 MWC 전시부스에서 5G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8-04906호 (2018.12.26 ~ 2019.12.25)

저금리의 어려움이 노후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수백만 고객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드리는 투자전문그룹 투자를 통해 고객과 사회,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은 미래에셋 창업 이래 한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온 분들께 의지가 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부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위해 저희는 다양한 우량자산을 찾고 해외에 진출합니다.

저금리를 넘어, 투자를 통해 수익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은행과 다른 투자전문그룹의 방식입니다. 좋은 수익과 안정성으로 기여하겠습니다.

Amazon · Alibaba · Facebook · Google · Netflix · NVIDIA · Starbucks · Tencent · & ...

11만명 규모의 한국인 실리본밸리 판교 투자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성과

해외우량자산을 선별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

“5G 전환기가 LG폰엔 기회”

LG전자 권봉석 사장

품질 개선 힘쓰며 성과·효율에 집중

“지난 수년 동안 LG전자 모바일 사업부는 품질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경영 성과와 효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경영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LG전자 모바일 사업부가 그간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재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5G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 MC/HE 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MC 사업본부장 부임 이후 처음으로 스마트폰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권 사장은 “5G 서비스로의 전환은 LG전자가 보유한 기술적 강점과 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는 5G를 시장에서 주는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V50 씬큐(ThinQ)로 5G 시장을 공략하고, 시장 반응과 5G 성숙도에 따라 하반기 5G 시장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25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MWC 2019’에서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LG V50 씬큐와 화면을 2개 탑재한 듀얼 디스



지난 15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G전자 MC/HE사업본부장 권봉석 사장이 MWC에서 선보일 5G 스마트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전자

플레이 폰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이다.

LG전자는 듀얼 디스플레이 폰이 5G 기술에 최적화된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사장은 “통신사업자별로 속도에 집중하는 사업자가 있고, 콘텐츠에 집중하는 사업자가 있는데 LG전자는 통신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듀얼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했다”고 말했다.

현재 일부 사업자와 동시에 라인업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한국뿐 아니라 북미 등 올해 5G 서비스가 시작되는 지역의 주요 이동통신사들과 협의해 판매부터 프로모션까지 광범위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해 8월 북미 주요 이동통신사에 올해 상반기 중 5G 스마트폰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북미 5G 시장 공략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구서윤 기자